

초기 불경 번역으로 불교 전파에 '큰 몫'

중국불교의 거사들 ③ 안현(安玄)·지겸(支謙)거사

중국불교의 본격적인 출발은 경전 번역에서 시작했다. 불교가 지닌 사상을 중국에 전달하려면 무엇보다 불경(佛經) 번역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불교가 중국에 본격적으로 전파되기 시작한 후한(後漢) 말 서역에서 수많은 승려들이 당시 수도인 낙양(洛陽)에 들어와 대·소승의 불경을 번역하기 시작했다. 그 가운데 가장 대표적인 번역가로는 안세고(安世高)와 지루가잡(支婁迦讖)을 꼽을 수 있다. 안세고는 아함부(阿含部)에 속하는 17부 경전과 <안반수의경(安般守意經)> <음지일경(陰持入經)> <아비담오법경(阿毘曇五法經)> 등 소승경전을 주로 번역했다. 지루가잡은 <수능엄삼매경(首楞嚴三昧經)> <도행반야경(道行般若經)> <반주삼매경(般舟三昧經)>과 같은 대승경전을 번역했다. 그런데 이런 역경사업에 수많은 서역출신 거사들이 참여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는 드물다.

낙양에서 역경에 참여한 거사 가운데 안식국(安息國) 출신 안현(安玄)이 대표적이다. 초기 역경 상황을

의 중국인 승려는 엄불조가 아니라 삼국시대의 주사행(朱士行: 203-282)이라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당시 중국인들은 재가신도로서 불교를 신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경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재가 거사인 안현 본인이 중국에 거사불교가 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도 이유타다.

후한시기 역경은 안현과 같은 서역출신인 외에 많은 수의 중국현지 거사들이 참여했다. 하지만 크게 들어와 하남(河南)에 정착했고, 그는 중국에서 출생했다. 그 인연으로 거사는 어려서부터 중국과 외국 서적을 모두 읽었고, 6개 국어에 능통했다. 또한 어려서부터 지루가잡의 제자 지량(支亮)에게서 불법을 배워 크게 이름을 날렸는데, 당시 사람들은 지루가

의 중국인 승려는 엄불조가 아니라 삼국시대의 주사행(朱士行: 203-282)이라는 주장도 있다) 따라서 당시 중국인들은 재가신도로서 불교를 신앙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경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또 재가 거사인 안현 본인이 중국에 거사불교가 보다 활발하게 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었던 것도 이유타다.

후한시기 역경은 안현과 같은 서역출신인 외에 많은 수의 중국현지 거사들이 참여했다. 하지만 크게 들어와 하남(河南)에 정착했고, 그는 중국에서 출생했다. 그 인연으로 거사는 어려서부터 중국과 외국 서적을 모두 읽었고, 6개 국어에 능통했다. 또한 어려서부터 지루가잡의 제자 지량(支亮)에게서 불법을 배워 크게 이름을 날렸는데, 당시 사람들은 지루가



그림 · 김홍인

안현 거사 - 재가자 수행법 밝힌 <법경경> 등 번역

지겸 거사 - 반야부 경전 번역 중국사상에 큰 영향

알려주는 승우(僧祐)의 <출삼장기집(出三藏記集)>에 따르면, 거사는 영제(靈帝: 159-189)시기에 무역을 위해 낙양에 도착했다. 낙양에서 우연히 불교를 접한 거사는 그 가르침에 매료돼 경전을 읽는 재미에 푹 빠졌고, 수계(受戒)까지 받았다. 그 후 거사는 장사도 포기하고 서역승려들과 불법을 논하기를 즐겼다. 경전 읽기를 즐겼던 거사는 속세의 인연이 번역에 있음을 깨닫고 적극적으로 역경에 동참했다. 중국불교사에서 중국인 최초로 출가승려가 된 엄불조(嚴佛調)와 함께 번역한 <법경경(法境經)> 제1권에는 안현 거사가 법문을 번역해 구술하면 엄불조가 받아 적었다고 쓰여 있다.

<법경경>은 재가인들이 어떻게 수행할 것인가에 대한 부처님 설법이다. 재가 거사들에게 '삼귀의'와 '오계' 등을 설명하며, 대승불교를 수지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의 경전이다. 안현 거사가 이 경전을 선택해 번역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거사가 활동하던 후한시기는 일반적으로 중국인들에게 출가가 허용되지 않았다. 이런 까닭에 최초

참 · 지량 · 지겸을 통틀어 '삼지(三枝)'라고 불렀다. 특히 지겸 거사는 '지혜의 주머니'라는 의미에서 '지낭(智囊)'이라고 칭했다. 전란이 발생하여 지겸 거사가 오(吳)나라로 피난을 하게 되자 오나라 군주인 손권(孫權)은 그를 초빙해 불법의 대의를 물었고, 거사는 일일이 자세하게 답했다. 그에 만족한 손권은 지겸에게 '박사(博士)' 칭호를 주고 태자 손량(孫亮)의 스승으로 삼았다.

당시 중국의 정치 상황은 위(魏) · 촉(蜀) · 오(吳) 삼국으로 나뉘어 전하가 삼분돼 있었다. 이 과정에서 불교가 새로운 통치철학으로 대두되면서 삼국의 모든 통치자들은 불교에 깊은 관심을 보였다. 최초로 중국을 통일한 진(秦)황제는 춘추 · 전국시대에 발생한 제자백가(諸子百家) 가운데 '법가(法家)'를 통치사상으로 삼았으나 지나치게 엄격한 법치적으로 실패하고 만다. 그를 이은 한조(漢朝)는 법가와 사상적으로 대조적인 '도가(道家)'를 통치이념으로 삼지만 역시 실패하고, 무제(武帝)에 이르러 '독존 유술(獨尊儒術)' 정책을 펼쳤다. 그러나 '유가'를

중심으로 한 통치이념은 후한에 이르러 근본부터 문제점을 드러내 결국 한황조의 몰락을 가져왔다. 이로부터 제자백가 가운데 대표적인 법가 · 도가 · 유가의 사상이 대제국의 통치이념으로 모두 적합치 않음이 증명되자 새롭게 중국에 퍼지는 불교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통치자들은 불교가 제국의 통치에 적합함을 빠르게 파악하고 있었다. 나관중 역사 소설인 <삼국지연의>에 간사함의 대명사로 기술된 위나라 조조(曹操)도 불교에 깊이 매료돼 불법의 발전에 많은 공헌을 했다는 것은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이다. 후한 말 중국에서 갑자기 불경 번역이 유행하고 국력이 집중됐음은 이런 통치자들의 관심을 반영한다.

지겸 거사는 오나라 황무(黃武) 원년으로부터 건흥(建興)년간(222-253)에 이르기까지 30년간 태자의 스승으로 있으면서 36부 48권에 달하는 경전을

번역했다. 그 가운데 <유마하경(維摩詰經)> <대명도무극경(大明度無極經)> <대아미타경(大阿彌陀經)> <법구경(法句經)> <대반니원경(大般泥洹經)> 등이 유명해진 대승경전에 속한다.

거사는 태자 손량이 즉위하자 모든 관직을 버리고 공릉산(雋陵山)에 은둔했다. 촉법반(竺法蘭)에게 오계(五戒)를 받은 거사는 오직 수행에만 전념했다. 거사가 산중으로 은둔하자 거사를 따르던 수많은 사대 부들도 관직을 버리고 함께 은둔했다. 거사의 정확한 생몰년도는 알려져 있지 않다. 비록 출가자가 아닌 재가자였지만 동진(東晉)의 명승 도안(道安)이 지겸을 '참다운 입실(入室)의 자격을 갖춘 고덕(高德)'이라고 평가한 것처럼 역대의 많은 고승들이 그를 칭송했다.

지겸의 사상은 지루가잡의 영향을 받아 대승불교에 치중돼 있다. 지루가잡과 지겸의 가장 큰 업적은

중국인들에게 최초로 반야부(般若部) 경전을 번역, 소개했다는 것이다. 지루가잡은 <도행반야경>을 번역했는데, 이는 구마라집(鳩摩羅什) 번역으로 알려진 <소품반야바라밀경(小品般若波羅蜜經)>의 동본이적이다. 지겸 거사는 지루가잡의 <도행반야경>을 다시 <대명도무극경>으로 개역했고 주석을 덧붙였다.

당시 <도행반야경>과 <대명도무극경>은 고도의 불교철학을 소개하고 있어 큰 반향을 몰고 왔다. 예를 들어 <도행반야경>의 '도행반야(道行般若)'는 후에 '반야바라밀(般若波羅蜜)'로 음역(音譯)됐다. '지혜도피안(智慧度彼岸)'으로 의역(意譯)되는 Prajñā Pāramitā를 번역한 것으로, '도행'은 노장(老莊)의 '대도를 행함(行於大道)'을 차용한 것으로 보인다.

지겸 거사의 '대명도무극(大明度無極)' 역시 <주역(周易)> 등에서 차용한 흔적이 역력하다. 지금은 '공(空)'으로 굳어진 용어를 지루가잡과 지겸은 모두 '무(無)'로 번역했다. 가령 '제법성공(諸法性空)'을 '제법분무(諸法本無)'로 표기했다.

경전 번역에 있어 이런 용어의 차용은 본래 경전이 지닌 의미로부터 새로운 해석을 가능하게 했고, 이는 위진(魏晉)시기의 풍미했던 현학(玄學)에서 나타난다.

현학을 창시한 사상은 조조의 양자인 하안(何晏)과 현학소년으로 알려진 왕필(王弼)이다. 조조와 그 일가는 철학하게 불교를 신봉했다. 조조 일가는 불교에서 통치철학을 건립하고자 노력하던 국교로 삼지는 못했다. 반면에 중원에서 멀리 떨어진 오나라 손권은 불교를 국교로 삼았다. 당시 중국 핵심인 관중(關中)을 차지했던 조씨 황실은 한대(漢代)에서 이어진 유가(儒家) 기반의 귀족세력 때문에 표면적으로 불교를 내세울 수 없었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조씨 황실은 하안과 왕필 등 학자들을 동원해 불교사상, 특히 반야사상을 기반으로 유(儒) · 도(道) 양가 사상을 포섭하고자 했다. 이런 과정에서 나타난 것이 현학이며, 현학의 직접적인 매개체가 된 것이 지겸 거사의 <대명도무극경>였다.

<대명도무극경>은 반야사상을 가장 중국적인 사유양식과 용어로 표현했고, 이는 반야사상으로 중국 전통사상을 포섭하는 것을 가능하게 했다. 왕필의 현학이 '본무(本無)'를 중심으로 운용함은 이런 사실을 증명한다. 이렇게 출현한 현학은 예전에는 중국사상에 없었던 '본체론(本體論)'을 대두시켰다. 이는 중국사상에 일대 획을 긋는 대사건이다. 위진 시기에 현학이라는 과도기가 없었다면 불교가 '중국을 정복'(이는 중국학자들의 표현일)할 수 있었을까?

안현 거사와 지겸 거사는 서역출신이지만 모두 중국에서 불교를 접했고, 적극적으로 역경에 참여했다. 그 결과 중국에 불교를 널리 퍼는데 지대한 역할을 했다. 특히 지겸 거사는 반야부 경전을 중국식으로 번역해 불교뿐만 아니라 중국사상에 대한기를 몰고 왔다.

—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김진무 연구교수

복상불소영가전
장량장식사용도

실물크기 (소)3.5×5cm (중) 5×7cm

금강경 전수경 반야심경
지장보살본원경요품
관세음보살요품
묘법연화경요품

불사인연 공덕을 맺으시며 세계생생 선근의
인연공덕을 쌓으시길 바랍니다

부처님께서 사용하시던 흑단목
기가 발산되는 신비의 흑단목염주, 포대화상향로

흑단목108염주, 단주
흑단무늬목/흑단무늬목천주
크기 : 8mm×10mm×12mm

흑단무늬목 포대화상향로
(대)26×16×16cm 125,000원
- 환인가 125,000원

예술조각품으로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고 있는 사람과 나눌 수 있는 미덕과 복판을 마음대로 이루어 주며 입에서 향이 뿜어져 나와 예쁠시에도 사랑합니다.

부처님께서 즐겨 사용하신 흑단목은 지구상에 존재하는 나무중 유일하게 기가 발산되고 최고로 단단하며 자연 문향이 은은하여 아름다우며 동남아 국가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나무중 최고의 명품인 흑단목입니다.

불경금책, 금병풍, 달마액자, 족자

소 병풍 (관세음보살 보문품) (지장보살본원경) 크기 : 가로, 세로 74cm

달마액자 (중)35×50cm (대)42×65cm

올마니반 예술품족자 60×20cm

금강 불교예술원에서 세계최초로 99.9%의 금을 나노화 하여 조성된 초소형 경전인 불경금책을 제작보급 하고 있습니다. 부처님 복장용으로 장엄하며 단체 주문시 발원문, 가족명단을 인쇄하여 드립니다. 또한 영가천도, 불사, 소장 및 휴대용으로 가능하며 기타 용도로 사용합니다. 순금경전을 휴대하는 것만으로도 부처님의 공덕과 불심으로 가피를 입을 수 있으며 호신용으로도 최고입니다. 큰스님 법어, 법구경도 크기별로 주문제작 합니다.

☎문의전화 02-722-1850
농협 : 1143-12-049474 송명화

건강백세 아직도 차고 시린 배를 참고 계십니까?
"암은 열에 약하고" 배를 차게하면 질병의 원인이 됩니다.

열침의 효능 금강약돌 온열복대

원칙적인 "열침"의 효능! 신비로운 금강약돌 온열복대

북한에서 소량만 생산되는 북한3대 특산품인 금강약돌을 주성분으로 만든 기능성 건강치료가 금강약돌 온열복대입니다.

본 제품은 34개의 금강약돌 육각불이 80℃ 이상의 고열이 발산되어 착용시 배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강력한 복사에너지가 전달되어 원칙적인 "열침"을 맞는 효과로 신체 어느 부위든 아픈 곳에도 착용하고 편안하게 앉거나 누워서 휴식을 취하면 **장속의 노폐물 배출, 소화불량, 만성위염, 장염, 생리통, 변비, 허리통증완화, 고관절, 어깨결림, 고혈압, 전립선** 등을 자연적 치유하며 체질개선 및 원활한 신진대사가 이루어집니다.

●아랫배가 냉하거나 손발이차신분
●오심증, 고관절, 당뇨, 전립선
●생리통, 변비, 냉증, 산후조리 (특히 여성에게 필수적입니다.)
●허벅지 지방분해 효과로 다이어트에 최고이며 다음과 같이 건강이 약하신분께서는 3-4일 먼저 선체현 후 구매여부를 결정하세요. 많은 스님, 불자들이께서 체험 후 좋은 치유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하리에 차기만 해도 **오장육부**를 건강하게 **허리**를 편안하게 하며 각종 질병을 예방하세요

속뎀의 불편함을 해소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

오장육부를 치유함에 있어 속뎀을 권장하지만 많은 시간이 소요되며 **흉터 및 뜨거움을 이겨내야 하는 고통과 냄새가 강하기** 때문에 가족 및 주위 분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불편함을 해결한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속뎀(최고60℃)보다 높은 고열(80℃ 이상)의 **원칙적인 "열침"**이 배속(오장육부) 깊숙한 부분부터 침투하여 자연적 치유되며 높은 열로 **복대를 하여도 화상 및 흉터 걱정 없이** 치유 됩니다. 차가운배, 허리통증, 발바닥온열지압, 어깨결림, 무릎통증 등 온도를 조절하여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합니다. 가격은 최저 기능은 최고인 **금강약돌 온열복대**는 건강도 지키고 암과 질병등을 예방하며 건강하게 장수하세요.

☎문의전화 : **금강의료기 (02)723-0099**
입금계좌 : 농협 170-12-056037 정애영
일요일 공휴일도 상담 합니다.